

세계적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 U-20 월드컵축구 한국 vs 폴란드 내일 오전 8시45분

## “시원한 골 세례로 16강 티켓 잡겠다”

16강 진출을 위한 막다른 길에 내몰린 한국 20세 이하(U-20) 청소년 축구대표팀의 주전 골잡이들이 이번에는 선제골로 시원스런 승리를 낚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7일 오전 8시45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폴란드와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07 조별리그 D조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한국 대표팀은 5일 같은 곳에서 회복 훈련을 가졌다.

앞선 미국(1-1 무), 브라질(2-3 패)전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도 승리가 없어 궁지에 몰려 폴란드전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박한 처지다.

특히 두 경기에서 수 차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선제골을 내준 공격수들은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영성(제주)은 브라질전 후 “두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지 못한 건 공격수로서 반성할 일이다. 선제골을 넣었다면 쉽게 풀었을 것”이라며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 바 있다.

브라질전에서 코뼈를 다치고도 만회골을 터트리며 두 경기 연속 골 맛을 본 공격수 신영록(수원)은 다시 한번 투혼을 불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영록은 이날 훈련 뒤 “우리가 슈팅 기회도 많았고 좋은 경기를 했지만 공격수들이 먼저 골을 못 넣은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폴란드전에서는 더 열심히 해 반드시 선제골을 넣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날 따로 재활 트레이너와 함께 가볍게 걷기만 했다.

신영록은 코뼈에 미세한 골절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아니다. 신동은 대표팀 주치의는 “정밀진단을 해봐야겠지만 부상이 심하지는 않다”면서 “더 큰 부상을 막기 위해 보호대를 구했는데 경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면 보호대 착용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영록도 “어제보다 조금 더 아파지고 있지만 의무진이 경기가 열릴 모레쯤이면 통증이 가실 것이라고 했다”면서 “보호대를 착용하면 시야 확보나 호흡이 불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 “폴란드도 강팀이지만 우리가 조직력이나 스피드에서 앞선다고 본다. 공간 침투에 이은 크로스를 공격수들이 슈팅으로 잘 연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코를 부상당한 심영록이 5일 오전(한국시간)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가진 대표팀훈련에서 얼음찜질을 하고 있다.

### ■ 양팀 모두 1·2차전 체력 소모 커

## “정신력으로 승부”

5일 오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스타디움. 전날 미국과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2007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1-6 참패를 당한 폴란드 대표팀의 훈련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훈련에는 브라질과 첫 경기에서 퇴장으로 미국전에 뛰지 않은 수비수 크리슈토프 크롤(레알 마드리드)을 비롯한 필드 플레이어 7명과 골키퍼 3명 만이 참가했다.

폴란드 대표팀의 통역은 “미국전에서 출전 시간이 많았던 선수들은 오늘 숙소 인근 공원에서 산책이나 조깅을 했고, 마사지 등을 받으며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미하일 글로비슈 감독은 전날 미국전 후 기자회견에서 대패의 원인으로 ‘선수들의 체력 소진’을 꼽았다.

폴란드는 1-0으로 승리한 브라질과 1차전에서 전반 27분 만에 크롤이 퇴장당해 10명이 싸우며 수위를 다했다.

글로벌리슈 감독은 “미국전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은 선수들의 체력을 만회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한국과 3차전을 앞두고 다시 주어진 이틀 중 첫 날을 주전들의 휴식에 할애했다.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를 가를 폴란드와 3

차전은 결국 체력 싸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폴란드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앞선 미국, 브라질전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지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는 경기를 해 선수들의 체력소모가 컸다.

부담이 컸던 미국전에서는 대표팀의 ‘산소통’인 미드필더 이상호(울산)를 비롯해 공격수 심영성(제주), 수비수 배성진(요코하마FC)이 경기 중 다리에 경련을 일으켰고, 경기 후 도핑테스트에 나선 박주호(송실대)와 신광훈(포항)은 소변 채취에 1시간30분이나 걸렸을 정도였다.

5일 회복 훈련에 한국은 폴란드와 달리 선수 전원이 참가했다. 하지만 역시 브라질전에서 많이 땀을 흘린 선수들은 가벼운 러닝과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 컨디션을 조절했다.

이를 내 체력 문제를 특별히 해결할 방법은 없다. 신동은 대표팀 주치의는 “계속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고, 평소 하던 대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그나마 위안인 것이 체력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신력 면에서 폴란드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세 이하(U-20) 청소년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5일 오전(한국시간)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폴란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 16강 진출

일본 청소년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이하(U-20) 월드컵에서 북중미 코스타리카를 꺾고 2연승으로 16강에 올랐다.

일본은 5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빅토리아의 로열 애슬레틱 파크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후반 23분 우메사키 쓰카사의 측면 돌파에

이어진 다나카 아토무의 결승골로 코스타리카를 1-0으로 제압했다.

1차전에서 스코틀랜드를 3-1로 누른 일본은 남은 나이지리아전 결과에 관계없이 16강 티켓을 확보했다.

같은 조 나이지리아도 예제키엘 발라의 연속골로 스코틀랜드를 2-0으로 완파, 일본과 함께 2연승으로 16강에 올랐다. B조 스페인은 잠비아를 따돌리고 1승1무(승점4)를 기록해 조 1위로 올라섰다.

### 국제클럽축구 피스컵 출전팀 9일부터 입국

오는 12일부터 열흘 간 국내 7개 도시에서 열린 국제클럽축구대회전 '2007 피스컵 코리아(이하 피스컵)' 출전 팀들이 9일부터 차례로 입국한다.

5일 피스컵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A조의 치바스 과달라하라(멕시코)와 B조 리버플레이트(아르헨티나)가 9일 오후 가장 먼저 입국한다.

다음날인 10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볼턴 원더러스(A조)와 레딩(B조)이 인천으로 입국하고, B조의 일본 J-리그 시미즈 S펄스는 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

11일에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라싱 산탄데르가 들어오고, 프랑스 올림피크 리옹은 가장 늦은 12일 낮에 입국한다.

이들 팀들은 입국하자마자 조직위로부터 숙소와 훈련 구장을 배정받아 시차 적응 및 조별리그 1차전을 대비할 계획이다.

유일한 K-리그 팀 성남 일화와 볼턴이 맞붙는 대회 개막전은 12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신지에 독주 내가 막겠다”

### 지은희 6언더파 단독 선두...신지에 3언더파

### KLPGA 아트빌리지오픈 2R

지은희(21·캘러웨이)가 신지에(19·하이마트)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4개 대회 연속 우승 저지에 나섰다.

올 시즌 우승컵 2개를 수집한 지은희는 5일 경기도 용인의 골드골프장(파72·6천423야드)에서 열린 MBC투어 코리아골프 아트빌리지오픈 이틀째 2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단독 선두에 올랐다.

1라운드가 집중 호우로 인해 취소된 이번 대회는 36홀 경기로 우승자를 가리게 돼 지은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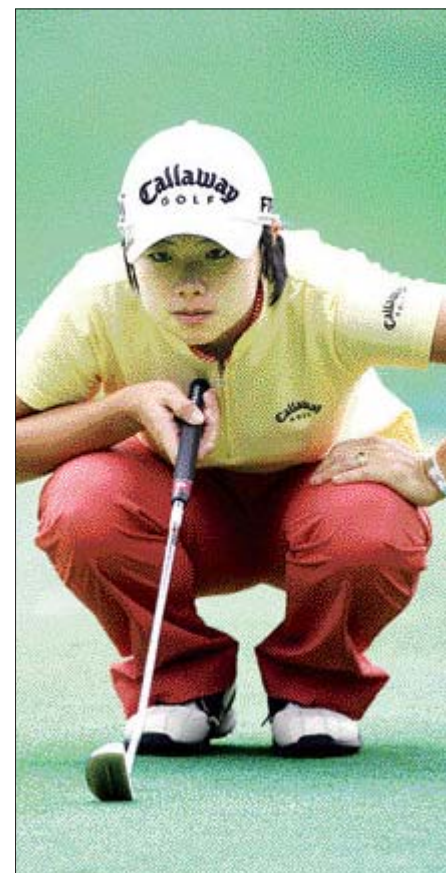
지난 주 미국에서 끝난 US여자오픈을 마치고 3일 오후 귀국한 신지에는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7위에 올라 6일 최종 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지은희는 전반에만 5타를 줄이는 상승세를 타며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친 신지에는 압도했다.

특히 8번홀(파5) 이글은 이날 경기의 백미. 지은희는 두 번째샷을 핀 오른쪽 3m에 붙인 뒤 이글 퍼트를 성공시켰다.

후반 13번홀(파5)과 14번홀(파3)에서도 연속 버디를 낚은 지은희는 15번홀(파4)에서 3퍼트로 1타를 잃어버린 것이 아쉬웠다.

피로가 풀리지 않은 신지에는 전반에



5일 경기 기흥 골드CC에서 열린 MBC 투어 코리아 골프 아트빌리지 오픈 2라운드 경기에서 지은희가 신중하게 퍼팅라인을 살펴 보고 있다.

만 버디 3개를 잡았지만 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신지에는 “비행기를 오래 타 아직 몸이 정상 아니다”라면서도 “보이지 3타를 줄여 기대 이상이었다. 코스 파악도 끝났고 샷 감각도 점차 돌아오고 있다”며 6일 경기에 자신감을 보였다.

올 시즌 첫 승에 목마른 최나연(20·SK텔레콤)은 5언더파 67타를 치며 조영란(20·하이마트), 김현령(33), 김보경(21·던롭스틱스)과 함께 선두 지은희를 1타차로 뒤쫓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함평다이너스티 생맥주 이벤트 마련



### 4개월에 아이스박스 설치

○4개월 양산디 골프장 함평다이너스티CC는 휴식기를 맞아 마제스티 3번, 8번, 임페리얼 3번, 7번홀등 4개홀팅팅 그라운드 근처에 아이스박스를 설치, 찬 물수건과 요구르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임페리얼 4번홀을 이벤트홀로 지정해 동반자 4명이 온그린을 시키거나 4명 모두가 병커피 빠지거나 한 사람이 홀인원을 한 경우 5번홀 그늘집에서 동반자 전원에게 생맥주를 제공한다.

### 최봉남씨 홀인원

○최봉남(63·광주 첨단병원장)씨가

지난달 30일 함평다이너스티CC 마제스티 3번홀(파3·140m)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다.

구령 26년에 핸디 6인 최씨는 이날 아인인 8번(마루방)으로 공(캘러웨이)을 티샷, 공이 원바운드로 되면서 홀컵으로 빨려들어가는 행운을 잡았다. 동반자는 배지수, 박창주, 조성수씨.

### 광주CC 조조단체 할인

○광주CC가 휴식기를 맞아 주말 및 공휴일 조조단체(오전 6시 이전, 10인이상)입장료를 8월중순까지 할인한다. 단체(3팀, 10인이상)로 주말과 공휴일 조조시간을 이용할 경우 현재 그린피 17만 5천원(카트비 포함)에서 4만5천원 할인된 13만원에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